불교유산 보수·관리 담당할 전문시설 첫 삽

조계종, 4월 26일 불교문화재연구시설 착공식

백만원력결집불사 주요사업
양평일대 2024년 완공 목표

양평=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수리를 담당할 전문 연구시설이 첫 삽을 떴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된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불사'는 종단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26일 양평시 양평읍 공흥리에 위치한 건립부지에서 '백만원력결집불사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한 종단 부실장 등 소임자 스님들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양평사암연합회장 오원 스님, 김현모 문화재청장, 지역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된 전통문화재 보존과 복원, 전승을 담당할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불사"라며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후 대외환경의 변화와 어려움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종단의 숙원사업이 이제야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전통문화재 보존과 활용은 민족의 정신문화 향상과 직결돼 있기에 단순히 종교문화재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오늘 건립에 착수한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일차적으로 우리 민족문화의 보고인 불교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영역까지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격 스님은 환영사에서 "조계종 중점사업인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이 양평에 건립된에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은 그간 사찰을 중심으로 큰스님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보존 전승했으나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라도 사찰을 중심으로 한 보존의 한계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나선 것은 거룩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조계종은 4월 26일 양평시 양평읍 공흥리에 위치한 건립부지에서 '백만원력결집불사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유산을 향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교는 지정문화재 뿐 아니라 수백년 전에서 근대에 이르는 많은 문화유산이 함께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고"라며 "오늘 착공하는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불교문화유산 전승체계를 새롭게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불사는 사찰에 소장된 불교문화유산을 진단하고 보존·복원·연구 등 전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통사찰에 소장된 문화유산의 보존환경 연구와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문화재 보존 및 복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방치되고 있는 다량의 미지정 사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3년 처음 계획이 수립된 후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으나 용문사가 부지를 제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9년만에 비로소 첫삽을 뜬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5-22번지 대지면적 5019.00㎡ 부지에, 건평 1889.19㎡, 연면적 6769.28㎡ 규모로 건립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로, 불교문화유산 연구는 물론 성보의 수리와 보수, 복원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된다.

상월결사 중심 '상월선원' 대웅전 상량

서울 봉은사, 4월23일 위례서 상량식 봉행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엄동설한 속 천막정진이 이뤄진 위례 청량산 상월선원 자리에 그 정신을 널리 펼 대웅전의 대들보가 올려졌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4월 23일 상월선원 불사 현장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상월선원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도심포교와 선풍진작의 터전이 될 위례 상월선원은 2019년 아홉스님들의 천막정진 이래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백만원력 결집불사 중점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불교계 원력이 하나로 모인 곳이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뤄진 상량식에 100여 불자대중이 참여해 의미를 되짚었다.

이날 상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위례 상월선원 사찰인 서울 봉은사의 주지 원명 스님 등 관계 스님 및 봉은사 신도 대중, 상월선원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과 천막정진 아홉 스님 중 진각·도림·성곡 스님 및 결사 대중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상량과 함께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있다.

이날 상량식에서는 상월결사와 상월선원 의미를 담은 상량문이 봉안됐다. 상량문에는 상월선원이 호국도량이자 불교중흥 및 세계평화 근본도량으로의 원력을 담고 있음이 실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상량보에 '불일증휘(佛日增輝) 법륜상전(法輪常轉) 백만원력성취(百萬願力成就)' 휘호로 그 뜻을 전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상량식에서 "오늘 한국불교 백만원력 결집의 큰걸음을 내딛는다. 8년의 긴 기다림 끝에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대작불사 출발을 전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며 "2019년 겨울 아홉 선지식들이 동안거 결제에 들어가며 고한 서원 결실이 이뤄진 것이기에 그 감동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2019년 겨울 석달 동안의 천막결사를 통해 불교중흥 원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전국을 순례하는 만행결사로 국민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힌 상월결사 전통이 이 곳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량식은 참석 대중들의 "한국불교와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정진한 아홉스님의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받아 더욱 정진하겠다"는 발원 낭독과 함께 상량으로 회향됐다.

한편 봉은사 수미산원정대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보은 법주사에서 3기 성주순례를 진행했다. 위례=노덕현 기자

동국대 경주캠 명칭, 'WISE 캠퍼스'로 변경

학교법인 동국대, 4월 26일 이사회서 결의

1979년 개교 이래 첫 변경
대학 브랜드 구축 위한 조치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명칭이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로 변경된다. 1979년 '동국대 경주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4월 26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제344회 이사회를 열고 경주캠퍼스 명칭을 '와이즈(WISE)캠퍼스'로 바꾸는 정관과 정관시행세칙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로 캠퍼스 명칭이 변경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와이즈(WISE)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대학 브랜드 구축을 위해 캠퍼스 특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해서다. 실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지방캠퍼스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 있다. 고려대 조치원캠퍼스는 세종캠퍼스로, 한양대 안산캠퍼스는 에리카캠퍼스로, 건국대 충주캠퍼스는 글로벌캠퍼스로,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미래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명칭 변경을 위해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해 3월 사업 계획안을 수립, 네이밍 전문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진행했으며, 2차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명칭 변경안을 수립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새로운 명칭인 '와이즈(WISE)'는 '지혜'라는 의미며, 'Wise Innovation, Smart Evolution(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혁신하고, 스마트하게 융합해 발전하는 캠퍼스)'이라는 의미도 담겼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김정훈 감사를 재선임했다. 김정훈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신성민 기자

김용태 교수, 제12회 원효학술상 대상

학술서 '조선불교사상사'로
공만식 교수, 특별상 수상



제12회 원효학술상 대상에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사진〉가 쓴 〈조선불교사상사〉가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4월 20일 종합심사회의를 열고 제12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학술 부문 대상에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가 저서 〈조선불교사상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특별상은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 대우교수가 저서 〈불교음식학〉으로 수상했다.

학생 부문 금상은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인 서담 스님이 논문 '실차난타 譯 〈대승기신론〉 서문의 편찬 배경과 법장의 영향'으로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5월 3일 열리며, 학술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15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학생 부문 금상에게는 500만원 은상에게는 400만원이 주어진다. 신성민 기자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봉녕사승가대학 ·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주지 진 상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전화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